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2:15-21(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17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18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19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 또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21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바울은 본문에서 일곱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15, 16(두개), 17, 18, 20, 21절)

→ \_\_\_\_\_

- 최근에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에 공감했거나, 누군가가 당신의 기쁨이나 슬픔에 함께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신이 벗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악으로 갚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 \_\_\_\_\_

-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 \_\_\_\_\_

- 지금 내 삶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겨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15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16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16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7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20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당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과,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위해 당신이 결단하고 실천할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롬 12:15-21 (이웃 사랑)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한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선이 인간의 악을 능력과 사랑으로 이기심으로써 입증되었듯, 우리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의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여러 가지 처방을 제시하며, 공감하고 겸손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섬길 것을 권고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말로 대응하며, 의도적인 해에 굴복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 것을 강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교만과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며, 자기를 내어주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거절당하거나 상실의 위험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데 만족하고 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최선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행하는 목적은 상대방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겸손으로 인해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임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주의로 메말라 가는 현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부터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악에 지고 있는가 아니면 선을 악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묵상해 봅시다!

## 6. 기도